

# 600년 역사 순천매실 가공산업 육성 박차

### 병해충 방제 ICT 앱 보급 등 명성 잇기 적극 지원 매실유산균 등 기능성 상품 개발 등 중국 진출 추진 월등면 황매실 가공공장 이달 준공...6차산업화 총력

전국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순천 매실이 최고품질을 자랑하며 명품 순천 매실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 매실 재배 규모는 1302ha로 전국 최대 면적을 자랑하며 연간 1만여 톤의 매실이 생산되어 전국 생산량의 20.3%에 해당된다. 순천은 예로부터 매실재배의 중심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순천지역 토산물 28종 가운데 매실이 등장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88호로 지정된 선암사 선암매가 순천매실 6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는 600년 역사의 순천매실의 전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매실 가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 정보 제공...전국 최고품질 매실 생산>순천시는 최고 품질의 매실을 생산하기 위해 올해 ICT 기반 매실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방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생육시기별 병해충 발생정보 및 방제적기 제공을 앱 개발하고, 매실 재배농

가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전통가위, 동력운반차 등 매실 기자재 지원과 지역별 순회교육을 연 20회 실시하는 등 최적의 수확관리를 맞춤형 재배로 최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2개 소 공동 선별장에서 농산물 표준 규격에 따라 등급별 선별작업을 거쳐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및 청과상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가공회사 등 다양한 유통 채널로 분산 출하된다. <가공산업 육성>순천매실 경쟁력 'UP'시키는 매실 가공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23억6000만원 등 총 53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5년간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중이다.

현재 매실초코크런치, 매실김, 매실 마스크팩 등 매실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Poco-terra(포코테라)'를 브랜드로 육



순천지역 농민들이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순천 매실을 출하하는 모습.

선, 위메프, 네이버, 우체국쇼핑몰 등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홈플러스, 가락동 팔도 마당, 사후면세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매실유산균, 매실비타민, 매실한 등 다양한 기능성 상품을 추가 생산해 국내는 물론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순천매실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월등면 운월리에 1089㎡ 규모의 HACCP 시설을 갖춘 '황매실 가공공장'을 건립중으로, 이달내 준공 예정이다. 가공공장에서는 매실 1000톤을 가공해 20톤의 매실 농축액을 생산하게 된다.

<순천매실 식문화 체험장 구축>순천매실 6차 산업화=시는 매실의 6차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월등면 계월리에 매실 식문화 체험장 조성을 지원해 이달내로 준공한다.

식문화체험장은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풍부한 매실 자원을 활용한 매실 돈육 스테이크, 매실 수제 소시지, 매실 소스, 매실 국수 등 먹거리 체험과 매실 족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매실의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매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명품 순천 매실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특히 매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과 6차 산업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만정원 100만송이 작약꽃 만발



순천만국가정원에 100만송이 작약꽃이 만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작약은 약용식물원, 장독대정원을 비롯한 정원 곳곳에 식재돼 있으며 5월 정원을 대표하는 꽃이다. 작약의 꽃말은 수줍음으로, 입을 따라 꽃이 된 공주의 사연을 담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만정원 키즈 페스티벌 오세요

#### 5~7일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다채

순천시는 "어린이날인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어서와! 신나는 정원이야'라는 주제로 '키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키즈 페스티벌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정원 동문 행사장과 후수정원 일원, 꿈의 광장 및 갯지렁이 다리는 길에서 열린다.

이색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이 동화·만화 속 주인공이 돼 포토월에서 사진도 찍고 퍼레이드 꽃차를 탑승하는 코스프레 체험이 마련돼 있다. 문화·체험 부스에서는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사진 스튜디오, 동물인형 만들기, 어버이날 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네이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갯지렁이 다리는 길에서는 책을 실은 수레와 어린이 동화책을 전시하는

야외 북 카페 운영으로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날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꽃잎과 나무껍질 등의 콜라주 그리기로 유명한 '숲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 작가 최향림 선생의 북 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또 정원 곳곳에서 아고라 공연, 저글링, 마징팬드, 키다리 베에로의 풍선 나눔 등 특별 이벤트와 공연이 개최된다.

한편 순천시는 5일 팔마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연다. '달려라! 순천에서, 꿈꿔라! 아이들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및 모범 어린이 표창, 버스킹 공연, 꼬꼬마 즉석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의 팬 사인회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는 요리, 과학, 생활, 환경 등 8개 분야 4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순천시 인문독서 아카데미 3년 연속 선정

순천시는 "인문정신 고양과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에 연계된 인문학 강의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내고 문화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로 인문학 강좌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문독

서 아카데미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근대를 보는 창'과 '철학 콘서트'를 주제로 김홍식 서해문집 대표, 최규진 역사학자, 황광우 작가,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 등 4인 4색 4명의 강사를 통해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는 17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 총 20강을 진행하며, 참여자는 선착순 80명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 의회·법원·검찰 등과 체결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 검찰청 순천지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아동친화도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청소년이 행

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순천시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100여명을 모집하는 한편 이달내로 2차례의 원탁회의를 열고 6월까지 아동의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종훈 시장은 "순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아이들 행복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는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



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면제

#### 캠핑카·트레일러도

순천시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제는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캠

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15인승 이하 승합차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순천시의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은 모두 1728건으로 22억원에 달한다.

다자녀가구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이외의 사유로 해당 자

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다자녀가구 감면제도 문의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061-749-6102) 또는 차량등록사업소(061-749-67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향기·사랑·꿈

수천만송이 세계명품 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제7회 곡성 THE 7TH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 세계장미축제

2017.5.19(금)-28(일) / 10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주최/주관 | 곡성군 | www.gokseong.go.kr/tour/ | 안내·문의 (061)360-8252(관광문화과)

- ▶ 장미향 시가지 퍼레이드 5. 20(토) 2시
- ▶ 작은 결혼식(프리웨딩) 주말
- ▶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 5. 26(금)
- ▶ 장미별장 작은영화관 저녁 7시
- ▶ 수타크래프트(장미전쟁-물총놀이) 2시
- ▶ 외국인 길거리 퍼포먼스 주말